

조선시대 邑治 景觀 독해*

김 덕 현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교수

1. 읍치와 읍치경관

읍치 경관이란 조선시대 관아가 있던 지방 행정 중심지 邑의 경관이다. 우리는 조선시대가 추구했던 세계관과 사회질서, 그리고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이 조선시대 읍치 경관에 명시적으로, 때로는 함축적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보고 그 의미를 해독하고자 한다. 읍치의 경관과 경관 요소, 즉 입지와 주위 산과 하천의 조화, 그리고 숲을 중심으로 한 반 인공적 환경 구성, 그리고 관아 건물 등 주요 시설의 구축과 배열 및 제사 시설의 공간 분포 등은 동일한 군·현이 하나도 없을 만큼 고유하다. 그러나 동시에 읍치 경관에는 이러한 개별성을 넘어 일관되는 전형성을 발견할 수 있고, 여기서 한 시대가 추구했던 가치와 이념, 그리고 의도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읍 터의 산천 모습과 관아 건물 배치, 그리고 문묘 향교, 사직단, 성황단(사)을 보면서, 그들의 삶과 질서가 유구하고 아름다운 산천과 자연스럽게 조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또 임금과 수령의 위엄이 천명에서 기원한 것이며, 신분의 상하위계 질서조차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지 모른다. 이처럼 불과 백여 년 전 우리 나라 행정 도시가 아름다운 자연을 닮도록 계획적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을 전통과 단절된 도시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은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조선시대 읍치는 그 시대의 세계관을 가시적으로 재현해 내는 상징체이며 조선의 자연에 가장 잘 조화되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었다.

2. 읍치 경관의 형성과 원칙

조선 전기에 완성된 유교 사상을 이념으로 한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와 훈육적 교화 사상이 우리 국토의 자연 지형과 생태와 혼연 일치하도록 공간적으로 재현된 것이 조선의 郡邑이다. 대체로 세종조 무렵에 완성된 조선의 군현제 정비에 의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이 있는 지방 행정의 치소

* 이 발표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BS1029).

인 전국 300여 모든 郡·縣의 읍치에 객사·아사·향청 등 행정적 장소뿐만 아니라, 진산이 지정되고, 문묘(향교에 소재)·사직단·성황사(단)·여단 등 1묘·1사·2단으로 편성된 상징적 제사 장소를 구비해 나갔다. 중심부의 행정 장소와 그 주변을 두른 제사 장소를 기본 구조로 영역을 구성한 조선시대 지방 도시는 당시로는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전국적 차원의 계획 도시 체제를 나타냈다고 여겨진다.

주목되는 조선시대 읍치 시설의 중요한 특징은 다양한 비보이다. 대부분의 읍치가 계곡분지, 하천의 연안 혹은 합류지에 입지하였으므로 수해 등 자연 재해에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환경지각적, 곧 풍수적으로 비호가 불충분하였다. 이 실제적 위험과 지각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리 지세적인 부족 점을 보완하고 경관 상의 흉한 점을 막아 주는 비보 시설이 설치되었다. 비보 산, 숲과 같은 자연적 형태에서부터 조산, 탑과 장승같은 인공 형태, 그리고 땅과 건물 이름 같은 지극히 심리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비보시설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의 다양한 문화적 노력을 의미한다.

3. 읍치 경관 주요 요소의 독해

1) 배산 입지를 활용한 권력(현세적 권위)의 자연화

읍의 가장 중요한 권력 공간인 客舍나 東軒은 邑基가 자리한 산줄기와 연결되는 鎭山 혹은 主山의 지맥을 딛고 입지한다. 산줄기에 기대는 권력 장소의 입지는 권력의 권위를 상징적 그리고 시각적으로 '자연화'되는 효과를 누린다. 산줄기는 백두산에서부터 시작된 산맥의 연원과 계승을 의미하고 이는 유교적 정통관을 연상시키고 상징하게 된다. 邑誌에는 백두대간에서 鎭山에 이르는 來脈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객사나 동헌이 뒷산(背山)에 기댔으로써 그 권위를 '자연화'할 수 있다는 점은 관아 건물에 접근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양각 변화의 특성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관아 건물에 진입하는 초기에는 하늘을 배경으로 배산이 시야의 중심에 들어 와서 자연경관이 주 경관으로 경험되고 관아는 산아래 조그만 지표로 나타날 뿐이다. 하늘을 배경으로 산과 건물은 일체화되어 경험되는 것이다. 점차 약간의 상승감을 느끼면서 건아에 접근하면,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다가 어느 지점에서 건물 혹은 정문에 의해 배산이 은폐되고 관아 건물이 주 경관으로 경험된다. 배산구조의 관아 입지는 이처럼 시각적으로 진입자의 인지도를 높일 뿐 아니라 접근 과정에서 자연적인 것을 사회적인 것이 대체하면서 사회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과 동일시되는 '자연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림 1>

2) 드러난 권력 경관과 숨은 제사공간의 조화

조선시대 지방 읍치 경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공적 장소 배치의 특징은 관아 등 행정 장소가 중심부에 배열하고, 문묘 등 제사 장소는 주변부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는 현세적 권위 권력의 상징인 행정 경관은 현실적 존엄을 상징하도록 중앙적 위치(읍성 내부)에 집중하되 상하의 구조로 배열하여 위계를 나타내도록 차별한다. 다른 한편 제사 장소인 문묘·사직단·성황사·여단은 주로 읍성 밖 東西南北의 사방을 두르는 방식으로 분산하여 배치하되 드러난 곳보다는 산기슭의 다소간 숨겨진 곳이 분포시킨다. 중세적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적 권위인 통치(권력)와 제사(종교)라는 이원적 이데올로기 체제를 “중앙 집중시키고 위계적 배열”하는 드러내는 방식의 권력 장소와 “주변에 격리하여 분산적으로 배치”하는 숨기는 방식의 제사 장소가 상충되지 않도록 공간적으로 조화를 추구한 것으로 해독된다.

<그림 2> 읍치 경관 모식도

3) 문화생태학적 환경지각의 비보 경관

<그림 3>

4) 다양하고 풍부한 혼육 경관

공식 교육기관인 향교 뿐 아니라, 정려, 비각, 누각의 제영, 각종 문루의 현판과 기문 등으로 교육, 교화, 문화적 경관이 가장 다양하고도 풍요하다. 문루의 이름은 유교적 가치를 직선적으로 드러내기 보자는 유교적 세계관의 요체가 자연과 합일하는 데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風化樓, 觀風樓, 欲沂樓 등은 유교경전을 인용하고 있지만, 자연을 즐기는 의미를 함축함으로써 그들의 이념을 ‘자연화’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그림 4>

5) 전통의 단절과 공공 장소의 계승적 점유

일제 식민지화, 전쟁,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문화적 전통의 단절이 조선시대 읍치의 중심적 공간이었던 객사나 동헌의 계승적 점유로 재현되었다. 이 과정에서 건물 자체로 대부분 사라졌다. 객사는 초등학교로 변한 곳이 가장 많다. 이는 아마도 객사 건물이 읍내에서 가장 큰 건물로 교실 용도로 용도 전환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하게 구 시가지가 근대 초기부터 시가지의 중심으로 된 곳 가운데 동래, 창원, 창녕 등은 시장 터로 바뀐 경우도 있는데, 이는 봉건적 순위사회에서 근대적 시장사회로 전환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동헌은 군청, 면사무소

등 관청으로 점유된 곳이 많다. 구 읍치가 군현의 통합되거나 읍 중심지의 이동 등으로 행정 중심성을 상실한 곳에는 상대적으로 읍치 경관의 많은 부분이 잔존되고 있다. 이 지금은 자취를 찾지 못하지만 과거 관아가 입지한 곳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느티나무나 회나무 은행나무 등 老巨樹의 존재이다.

<그림 4>

4. 읍치 경관이 재현하는 이념

1) 유교적 세계관의 '자연화'

경관 독해는 텍스트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종교나 사상과 같은 공통의 해석 체계 (code)를 통해서 경관을 경험하는 것이다. 현대에서 역사적 경관을 재 독해하는 것은 경관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당대인의 코드를 이해한다는 전제하에서, 일차적으로는 그들이 자신의 종교나 사상을 경관을 통해서 어떻게 정당화하고 사회 통합에 활용했는지를 알아내는 일이다. 나아가 종교나 사상이 경관으로 外化되는 과정에서 작용되는 美學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이 될 것이다.

종교적 신념이 사회 통합의 원리로서 작동했던 중세에 한국과 중국의 지배층이 공유한 세계관은 유교적인 것이며 유교적 세계관은 기독교나 이슬람교 등 유일신 종교와 다른 것은 물론 동양권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와도 다르다. 경관으로 재현되는 되는 것과 관련하여, 유교적 세계관의 특징은 차별적 통합을 의미하는 理一分殊의 세계관과 종교적 대상에 대하여 “공경하되 멀리하는 것이 지혜롭다(敬鬼神而遠之, 可謂知矣 -[論語], 雍也)”라고 보는 ‘敬而遠之’의 자세로 일단 정의할 수 있다.

2) '理一分殊' 세계관의 재현

자연적(天地) 질서에 정당성의 뿌리를 두고 이를 사회질서의 원리에까지 확대시키는 유교적 세계관은 '理一分殊'의 이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 '차별적 통합'이라는 독특한 사회 조직 원리로 구체화된다. 孟子는 天地萬物이 하나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차별화 된다는 의미에서, 愛·仁·親의 구분을 제기하였다. 宋의 周敦頤, 張載, 程頤, 朱熹는 孟子의 단계적 사랑을 '理一分殊'라는 理氣哲學의 세계관으로 발전시켰다. 朱熹는 “上下的 分殊는 天理의 自然이다” 하고, 禮는 타고난 인간 본성의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며, 禮는 天理의 節文(절도의 아름다움)이고 自然의 節文이니, 따라서 嚴하나 化습하지 않음이 없고, 化습하나 嚴하지 않음이 없다” 고 하였다. 이처럼 理一分殊는 理와 氣, 形而上과 形而下로 받아 들어지고, 다시 嚴하면서도 化습한다는 사회적인 도덕 실천과 연관된다. 하나로 통일되지만 만 가지로 다르다 라는 것은 천하가 하나라 하지

만 결코 兼愛의 폐단으로 흐르지 않으며, 만 가지로 다르지만 하나로 관철된다는 것은 친함과 소원함이 다르고 귀천을 달리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爲我的 사사로움에 桎梏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理一分殊에서 공통된 보편성을 理一이라 하고, 사물 각각 신분과 역할에서 차이가 있고 자기 아버지와 다른 사람의 아버지, 사람과 사물을 대할 때 생기는 親疎의 차이가 分殊이다. 理一分殊은 유교적 이데올로기 禮의 특징인 차별적 통합성을 이해하는 핵심적 개념이다.

유교적 경관은 分殊를 의미하는 유교적 禮의 位階的 표현을 공간에 재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유교적 경관은 이 위계가 理一을 의미하는 天理에 해당하는 자연 질서에서 기원한 것임을 나타내야 한다. 分殊는 기본적으로 자연적(생태학적)인 발생 과정에서부터 禮로 표현되는 사회적 차별화의 정당성을 찾아내는 類推的 推論이다. 周易(序卦傳)에는 天地 - 萬物 - 男女 - 夫婦 - 父子 - 君臣 - 上下라는 禮의 발생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君臣-上下의 禮”라는 사회적 질서가 자연 질서와 생명 질서로부터 그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읍치의 중심적 권위 공간인 객사나 동헌이 면면이 이어온 산줄기에 등을 기대고 입지하고 있는 것은 인간 사회 질서에 권위를 부여하는 源泉을 天地에 속하는 自然 地形에 두고, 또 이를 媒介로 그 정당성을 보장 하자는 상징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理一分殊가 나타내는 차별적 통합의 정당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기원이 다른 다양한 제사 경관을 사방에 분리시켜 배치한다. 조선시대 읍치 경관의 상징성은 일차적으로 동국여지승람에 기술된 읍치 경관을 기술하는 원칙과 순서를 통해서 읽혀질 수 있다. 즉, 형승·산천 - 제사 - 권력 등의 배열 순서를 취함으로써 자연에서 조상 공경으로 그리고 난 후 현실 권력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자연과 조상을 원천과 매개로 하여 유교적 세계관과 그 현실적 구현으로서 사회질서를 정당화하였다.

3) '敬而遠之' 종교관의 재현

도시는 분업으로부터 유래된 것이고 분업에 의한 잉여가 공간적으로 집중되는 곳이었음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변하지 않은 사실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중세적 사회의 공통적 특성은 사회체제 정당화의 이념적 근거를 종교 이데올로기에서 구했기 때문에 도시 경관의 가장 탁월한 형태는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경관이며, 도시 중심부에는 종교 경관이 자리한다. 중세 순위 사회에서 이른바 잉여가 시장 교환이 아닌 종교가 규정하는 신성 혹은 권위의 순위에 따라 재분배되며, 이러한 사회적 기능에 부여하는 권위의 위계가 사원이 있는 중심부로부터 거리로 재현된다. 이처럼 중세 순위 사회는 공간의 계층성과 상징성(우존론적 상징주의, 신성 공간과 비천한 공간)을 종교적 권위를 활용하여 공간 구성에 철저히 반영하였다. 서구 중세의 도시는 교회(종교)가 지닌 “中心·永生·最高”라는 3가지 권위를 상징하도록 구성되었다. 즉 현실 생활에서도 중심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기 위하여 가장 견고한 고귀한 석조 건물로 지어지며,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것이어야 했다. 이슬람의 도시는 중심에 위치

한 대 모스크로부터 동심원 모양으로 신성 서열을 표현하고 고층 집은 오만을 나타낸다 하여 금지되었다. 즉, 모스크-상가-창고-대상의 숙소-수공업 지구 등이 동심원을 형성한다. 이 배열은 전통적 의미의 “깨끗함(신성)”과 “더러움(속됨)”이라는 개념에 따라 도시 기능(직업)을 중심부에서부터 신성도 순서에 따른 동심원 구조를 형성한다.

조선시대 한양의 정궁인 경복궁의 ‘子坐午向’은 ‘君子南面’이라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으며, 시체나 비천한 물건이 통과하는 문은 따로 정해졌다. 중국과 한국에서 도시 계층은 수행하는 기능과 규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을이 배출한 인물의 지위와 국가에 대한 충성도를 도시 위계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고을 인물의 도덕성과 충성도에 따라 수시로 읍격의 승강과 통폐합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중세적 도시경관의 위계성은 도덕성과 종교에 기초한 중세 사회의 위계적 조직 원리를 공간적으로 것이라는 점에서 기독교, 이슬람, 유교가 공통성이 있다.

그러나 유교가 다른 기독교나 이슬람과 근본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제사 장소를 현세적 권위 공간과 뚜렷이 차별화하여 주변에 격리하여 배치한다는 점이다. 공자는 귀신 섬기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사람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기겠느냐?”고 답하고 또 죽음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도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하고 답함으로써 生과 死의 道가 차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 종교적 제사 시설은 “祖宗을 높이며(尊祖宗), 신기를 공경(敬神祇)하는” 중요한 읍치 경관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살아 있는 사람을 섬기는 현실적 권위에는 도전할 수 없다는 유교적 현세주의가 이처럼 주위에 차별적으로 배치하여 이차적 중요성으로 주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공간적으로도 재현된 것이다. 동시에 주변화된 제사 장소는 邑基의 국면을 형성하는 四神砂 부근에 입지하여 자연 지형을 통하여 이차적 권위를 재현하고 있다. 읍치의 다양한 제사시설은 지방 수령이 제사를 주재하는 주요 공공시설이다.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주기적으로 제사함으로써 조선시대에는 잘 보전되었다. 그러나 조선이 망하면서 향교에 함께 있는 문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읍치 제사 시설이 훼손되어 지금은 위치조차 찾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다.

4) 邑基 수호 개념의 재현

제사 시설이 읍성 바깥의 주위에 배치된 것을 이해하는 방식의 하나로 읍을 방어하는 실제적 상징적 관심과 관련시킬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 읍은 대부분 하천의 함류 지점에 입지하여 외부의 침략이나 도적 뿐 아니라 수해로부터 위협도 컸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읍이 비보 시설은 두었는데, 비보 숲이나 조산, 그리고 비보 사찰을 포함하는 비보 탑 등이 하천 제방 근처에 입지하고 있다. 비보와 마찬가지로 귀신을 모시는 제사 시설은 공동체 공간의 수호를 초 현세적 힘에 의존하고자 하는 관념이 재현된 것이다.